

#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차질

## 불추위 활동중단...주관단체 재선정등 시일 촉박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한측의 조선훈교도연맹(조불련)과 합의해놓고서도 준비는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는 지난 3월 중단협의회와 조선훈교도연맹이 북경에서 만나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가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중단협의회는 토론회의 남측 주관단체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주최는 중단협의회에서 하겠다고 조 불련에 알렸다.

그러나 불교추진위가 사실상 활

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토론회 개최 합의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주관단체를 선정해 경비, 시기,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단협의회는 이날 중 방북하는 진각종 대표단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파악한 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남측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가운데 진각종 대표단에 북측과의 논의를 맡겨두고 있는 상태다. 중단협의회는 3월 이후 한 차례도 통일토론회와 관련된 논의

를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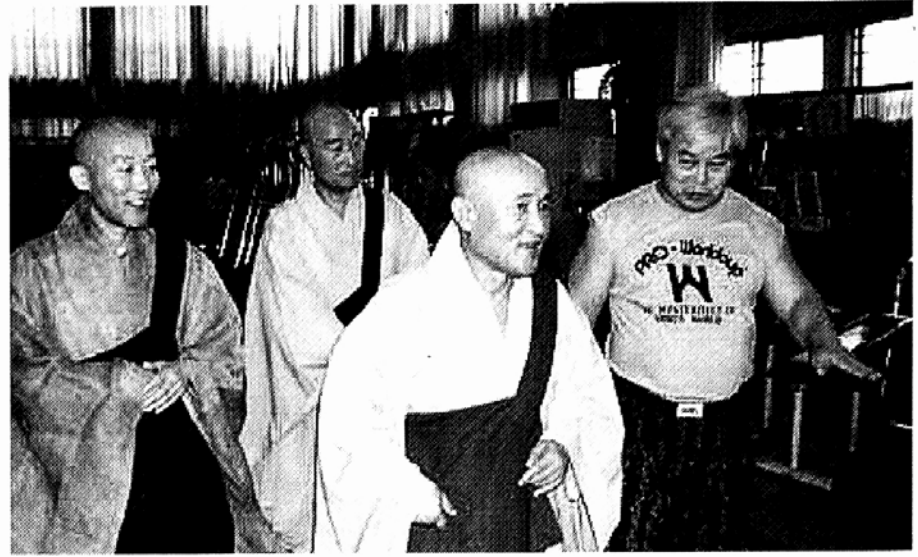
8.15 남북통일시범회도 현안으로 다가왔음에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8.15 남북통일시범회는 지난 해 처음 조계사와 보현사에서 열려 공동발원문과 남북불교 대표의 인사말을 교환했다. 올해 8.15 통일시범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불교를 대표하는 중단협의회와 조선훈교도연맹(조불련)의 교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단별로는 8.15 남북통일시범회 개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 종단의 교류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종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단협의회 내의 남북불교교류위원

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중단협의회 사무국장 범현스님은 "각 종단 대북교류 주무부서장이 참여토록 돼있는 남북불교교류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민족화합불교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종단과 단체별 대북교류를 하되 중복 사업, 지나친 경계를 피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중단협의회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중단협의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정대스님, 올림픽대표 격려

조계종 추무원장 정대스님은 4일 태릉선수촌을 방문,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대스님은 정창선 선수촌장의 영접을 받고 귀빈실에서 선수촌 현황과 올림픽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장 선수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성준 체육훈장 지도위원의 안내로 체육훈장장인 열계관을 둘러보고 "목표한 성과를 거둬 국민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이천만 불자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8월말 태릉선수촌에서 불자선수 환승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대스님의 이날 태릉선수촌 격려 방문에는 교육원장 일연스님, 추무원 기획실장 열철스님, 사서실장 성국스님이 동행했다. 정성운 기자

## 불교계-환경단체 합심 지리산땀 백지화 운동 '국민행동' 28일 발족

'지리산 살리기 땀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부선 등 불교단체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풀꽃 세상을위한모임, 농심마니, 세민재단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가칭) '지리산땀 백지화 국민행동'을 오는 28일 결성해 국민적인 땀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7일 느티나무에서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4~1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지리산 살리기 문화축제(8월 5일 예정)를 개최하는 한편 8월 발표예정인 낙동강물리리종합대책 조사단의 1차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이 지리산땀 반대운동에 잇달아 가세함에 따라 불교계가 주도해 온 지리산 살리기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 태고종 '남북교류위' 구성

북한불교연구·포교기금조성등 추진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5일 각급 기관장 및 전국 시도교구 중무원장 연석회의에서 남북불교교류추진위원회(이하 '남북교류추진위')의 설치를 결의했다. 남북교류추진위는 북한불교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남북통일에 일정 역할담당을 자임하며 △북불교문화교류 △북한동포지원 △북한불교연구 △북한포교기금 조성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전통사찰복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량과 비료, 생필품 지원사업도 승계, 북한동포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 또한 북한불교계와 공동으로 정통법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모금된 2천여만원의 통일기금을 토대로 북한포교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남북교류추진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 19개 교구중무원에 지방위원회를 두게 된다. 태고종은 현재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이경숙 기자

태고종은 지난날 북한불교계에 제안한 바 있는 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 영산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는 것을 비롯 불화와 단절기술 지원, 전통홍가사 지원,

## 동국대 교수 임용 내정설 등 '구설수'

동국대 서울·경주캠퍼스 불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3일 모집 마감한 불교대 교수 임용 분야는 유식학·한국불교사(서울), 인도선사상·중국선사상(경주) 등 4 분야. 이중 '유식학' 분야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인도선사상' 분야 지원자격을 '유교유식' 전공자로 한정해 이미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대 결원 분야는 유식학과 한국불교사를 비롯해 최근 타계한 김인덕 교수의 전공분야인 중관학 등 총 3개 분야. 그러나 지난 97년 유식학 공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공채에도 불구하고 매번 채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97년 이후 불교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원칙보다는 재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단과 교수들의 반목도 심했다.

이번 공채에서 유식학 분야의 지원자가 없는 것도, 이 분야 전공자들이 '재단에서 이미 낙점을 찍은 스님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지원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불교사(서울)와 인도선사상(경주) 부문의 교수 임용 역시 '실세의 내정설'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국대 내 '불교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국대 한 교수는 "교수 임용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교수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학교가 불교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 서울광역시의회 9월2일 창립

서울광역시의회가 9월 2일 창립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일 조계사회의실에서 영화사등 3개 사할 신도단체 대표와 지하철 범우회등 3개 신행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역시의회 창립준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1일 여타 사할 신도회 및 신행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회의를 갖고 회칙 초안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43개 사할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16개 신도회와 단체가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날 참석한 신도회 및 단체는 6곳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 조계종 87개 선원 1685명 정진

조계종 87개 전국선원에 정진하고 있는 선방남자는 1,68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선원수좌회가 1일 발표한 이 같은 수치는 선방 안거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선방 방내 안거대중은 83년 739명이던 것이 87년 동안 거꾸러 1천명을 넘기 시작해 93년 하안거 1094명, 94년 동안거 1143명, 95년 동안거 1218명, 96년 하안거 1289명, 97년 하안거 1389명, 98년 동안거 1536명, 99년 1640명 등이다. 또 이번 결계제에는 감사, 개심사, 서운안, 성문사, 선홍사, 용화사등 6개 사할이 비구선원을 새로 개원, 선원 숫자도 87개로 가장 많다. 선원은 1983년 35개이던 것이 98년 69개, 99년 77개, 올해 87곳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김원우 기자

## "동국학원 정관 재개정 요청"

조계종 종합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소위원장 영담스님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학원 정관 재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임원 선임방법 개정하며 '법정일 내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후보를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단서를 단 것은 중회 추천절차상의 물리적 시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담스님은 또 "종합학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으나 동국학원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학교관리위 전체 회의를 10일 이후 열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동국학원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임(이사, 감사), 종합학교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을 논의한다.

정성운 기자

## 종교계 사형제 폐지운동 확산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위원장 진관스님)는 4일 발표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선언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존중한다는 가르침을 온 몸으로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불자들은 사형제 폐지운동을 통해 '살생중죄 금일참회'의 생명중중 사상을 전국민과 함께 날마다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는 "아무리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한다해도 이는 또 다른 살인을 하는 행위"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존중의 합계상을 건설

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지원·한상범)는 이와 관련 '감옥에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전원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편 종교계의 사형제 폐지운동에는 불교사형제 폐지운동본부를 비롯하여 기독교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포럼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현대 만평 박구원

방치하다간...

###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 hyecho@hyecho.co.kr

---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장엄을 지켜가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시간을 넘어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일 정: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내국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출발일: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포함사항: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Jeep(4인승), 중국비자, 티벳여행허가서, 사원인장표, 영어가이드, 보험

출발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항공품으로 Jeep 이용조건

##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

**스포츠 조선과 함께 이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일** ₩1,349,000

일 정: 서울 - 서안 - 둔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출발일: 7/14, 21, 28 8/4

---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풍요로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 정: [21박 22일] 서안-난주-가곡관-둔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탄-쿤밍(대림정사)-파르나-바이샬리(대림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카르(열반사, 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롬비나-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원, 전용차량

출발일: 7/24, 7/31, 8/7 (10명 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여행사 선보이는

**세컨인도, 네팔 자유여행(28일) ₩1,990,000**

- ◆ 인도 대도시: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 불교 성지: 룸비니, 쿠시나카르, 녹야원
- ◆ 북인도: 다람살라, 레, 스리나카르, 정무
- ◆ 네팔: 키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일 정: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 사후 - 레 - 사스폴 - 카르길 - 스리나카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 바라나시 - 쿠시나카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불포함사항: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출발일: 10명 이상 수시 출발

---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여행사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반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일만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순례후 키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내국항공: 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르나-바이샬리(대림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카르(열반사, 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롬비나-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원, 전용차량

출발일: 15명 이상 수시 출발